

순교성인 | 이남규 루카, 레드케임 기법, 직경 300cm 1989년,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

입당 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25,6-10 ㄱ

화답 송 | 시편 23(22),1-3 ㄱ.3ㄴㄷ-4.5.6(◎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랴.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
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

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
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필리 4,12-14.19-20

복음환호 송 |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 마태 22,1-14 <또는 22,1-10>

영성체 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허석훈 루카신부 | 한강성당 주임

| 뭣이 중헌디!

초대받은 것 자체가 영광일 때가 있습니다. 초대된 자리가 너무 과분한 영광이고, 그 자리가 불편할지도 몰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극히 관심 있던 자리에 초대된 상황이라면,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행운이고 가슴 벅찬 초대입니까?

이런 우리의 심성을 고려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초대처럼 보입니다. 다시 재차 초대하자, 초대에 응하지는커녕, 짜증스럽게 반응하며 초대하러 온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초대보다 '지금의 자기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왕이 베푸는 혼인 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징후가 너무도 뚜렷합니다. 초대에 관심이 없는 것이 뭐가 그리 중죄냐 싶으시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을 수 없듯이, 거부할 수 없는 초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여된 생명력의 목적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인정과 성취에 목말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근거 없는 자부심에 휩싸여 '생명력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지금의

'현실'에 '자만감'으로 콧대를 높입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망치거나 '이 이번 생 생은 망 망했다!'라고 한탄하며, 지금을 허비하고 미래를 버려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잔치에 입장했어도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역시 비슷한 의미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일상,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 주신 하느님의 뜻과 삶의 의미, 그리고 생명력을 입고 살 수 없는 모습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자매 여러분! 매일의 미사는 세상을 위해 하느님에게서 초대하시는 성대한 잔치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잔치 음식이 별로라고, 가 봐야 별 뽀족한 재미가 없다고 평가하며, 하느님의 초대보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설사 하느님의 초대에 간신히 응한다 해도,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청하여 얻기 위해 하느님 초대에 맞는 예복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의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느님의 초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 멋대로 입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옷으로 단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마태 22.14)

저도 하느님께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구원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해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에 보이는 순교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초대받은 잔치에 혼인 옷을 아름답게 갖추어 입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내면의 자유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여 마음의 옷이 소중히 가다듬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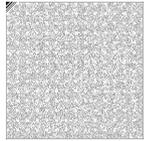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10월 말씀의 이삭은 교정사목위원회에서 함께 동반하는 다양한 필자분들(일용직 노동자, 최고수, 해밀(피해자 유가족 모임), 자활근로자, 퇴임 교도소장)이 채워주셨습니다.



김 마리안나 (가명) | 해밀(피해자 유가족 모임)

|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시누이가 다니는 본당의 수녀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남편과 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행복한 우리 가정을 시기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6년 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말썽 한 번 피우지 않았던 착하고 예쁜, 친구 같았던 무남독녀 외동딸이 그렇게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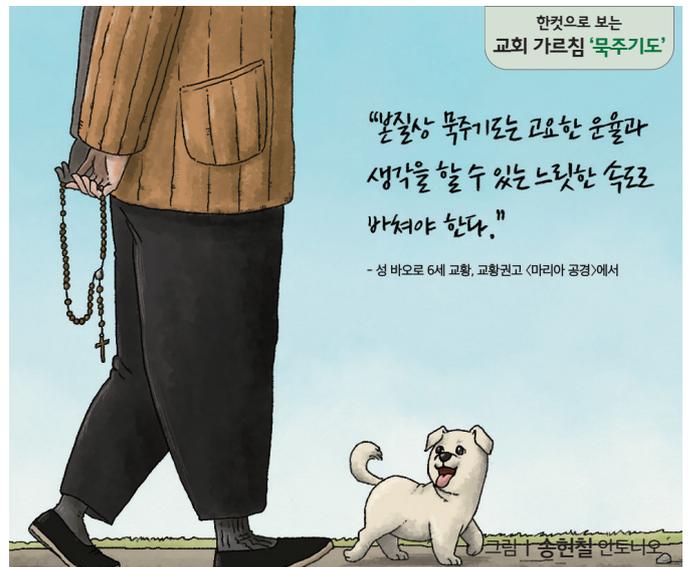
이후의 삶은 온통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니, 그저 딸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보냈어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을 텐데, 한순간에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갔기에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울부짖으며 소리도 지르고 원망도 퍼부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아니 지켜주지도 못한 죄인이라는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자책도, 원망도 울부짖음도 저희 가족을 치유해 주지는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차, 세례받은 신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결심하던 우리 가족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은 원망과 울부짖음으로 하루를 채우는 제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점차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보에서 교정사목위원회에,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 모임(해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교정사목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신부님께 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부님을 만난 후 매달 한 번 해밀 모임에 나가면서 가슴의 응어

리를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친척들에게 딸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조차도 이젠 그만하고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해밀 모임에서는 억울하고 맺힌 마음을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해밀 가족 모두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에 진심 어린 이해와 동감으로 서로 울다가 웃기도 하면서 아픔을 나누며 또다시 시작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건 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매년 피고 지는 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슴 속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용서로 지워갑니다. 사랑하던 딸은 잃었지만, 하느님의 축복으로 교황님을 만나 뵈 수 있었고, 주변에는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지지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고통도 털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딸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힘으로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해밀' 모임에서는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 유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하면, 시성된 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성인들과 지상의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혹은 나을까요?

가톨릭교회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번역하는 라틴어의 원문은 “콤무니오 상토룸(communio sanctorum)”입니다. ‘상토룸’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사람들(성인들)’로, 혹은 ‘거룩한 것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코이노니아’의 라틴어 번역인 ‘콤무니오’는 사도신경에서는 통공, 신학에서는 친교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흔히 친교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근본적인 뜻은 ‘어떤 좋은 것에 함께 참여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공동체를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1코린 8.4), 예수님과 친교를 나눔(1코린 1.9), 복음 전파에 참여(필리 1.5), 같은 신앙을 가짐(갈라 2.9), 같은 빵을 먹음으로써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1코린 10.16), 성령 안에서 친교(2코린 13.13), 공동생활에서의 친교(사도 2.42) 등등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콤무니오 상토룸’은 성인들의 친교(통공), ‘성도들의 교제’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인 것, 그래서 진리와 아가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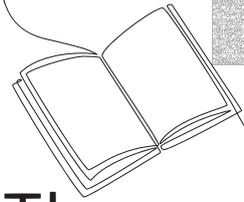
교회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를 종종 “신자들의 공동체 (congregatio fidelium)”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동교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느님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같은 신앙으로 일치시켜 주시고 당신의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같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갖는 교회 공동체는 성찬례의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은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1코린 10.16 참조) 사실 성체성사는 매우 일찍부터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1코린 11.23-26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찬례에서 신자들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했고, 이 기억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는 신앙의 원천을 기억하는 장,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장, 그리고 참여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콤무니오 상토룸’이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복음, 특히 성체성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통해 거룩해진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교도 의미했습니다. 이 친교는 우리와 이미 천국 영광에 계신 분들과, 정화의 과정 중에 있는 죽은 이들과도 이룹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작별 인사와 예루살렘 여정 시작 (20,13-38)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트로아스에서 바오로는 죽은 에우티코스를 살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번에 헤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인지, 에페소 원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작별 인사는 마지막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해준 바오로의 고별사는 구약성경 속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의 고별사와 유사합니다.

모든 고별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후계자들에게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또한 현 상황을 정확히 살피는 가운데, 실제적인 훈계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후계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같은 형식을 이어받은 신약성경 속 고별사로는 예수님의 고별사를 담은 요한 13-17장과 1베드로 1-2장, 2티모 4,6-22 등이 있습니다. 바오로의 고별사도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18-21절) 에페소에서 보낸 자신의 과거와 그곳에서 했던 봉사, 수고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던 복음 선포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의 여정은 그에게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옥과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24절)라고 고백합니다.

바오로는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 여정이 영원한 이

별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런데 에페소 교회에는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분열의 씨앗은 바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원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떠난 뒤에 에페소 교회를 분열시킬 사나운 이리 떼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리 떼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는 ‘율법의 충실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로마 3,28 참조)고 떠드는 이들이며, ‘유대교식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사도 15,1)고 선동하는 이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떼와 목자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리 떼는 진리를 왜곡해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오지만, 진정한 목자는 인내와 자기희생으로 끊임없이 양들을 타이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에페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되새겨 줍니다. 재산을 탐낸 일도 없고, 다른 이의 도움보다는 필요한 것을 본인 스스로 장만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는 이별의 시간입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떠날 것이고, 원로들은 에페소로 돌아가 이리 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인사는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 선포를 떠나는 바오로를 응원하는 듯합니다. 이들의 이별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또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묵주기도란 무엇인가요?

묵주기도 성월인 10월을 맞아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 중 하나인 묵주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장미밭이란 의미의 라틴어(Rosarium)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는데, 중국에서는 서양 꽃인 장미를 매괴라 불렀기에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묵주기도를 매괴신공(매괴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원어 그대로 로사리오(Rosario, 장미 화관) 내지는 묵주기도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도의 형태로 본다면 성모송의 주된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소리 기도이나, 성모송은 기도를 바치는 이들로 하여금 4개의 신비(환희, 빛, 고통, 영광) 안에서 끊임 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708항 참조) 이 성모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기도인데, 성부의 구원경륜(救援經綸) 안에서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였던 마리아의 응답으로 강생하신 말씀의 육화 사건이 전반부이며,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교회의 간구가 후반부입니다. 그리하여 복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묵주기도를 “요약된 복음서”(<마리아 공경> 42항)라고 부르셨습니다.

! 묵주기도는 왜 중요하나요?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하는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묵주)기도는 커다란 효과를 지닌 기도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1항) 왜냐하면 묵주기도는 우리의 마음 꽃 한 송이씩을 묵주알에 엮어 성모님과 그 아드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꽃다발과 같은 기

도이므로, 묵주기도야말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성모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묵상기도이자 관상기도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679항; <어머니 공경> 2항, 46항;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12항, 16항)

! 묵주기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성경 구절은 거의 못 외우지만 묵주기도에 매달리며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들의 강인한 믿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간구하는 누추한 집 안에 켜진 촛불에서 퍼져 나가는 큰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복음의 기쁨> 125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고백처럼, 묵주기도는 소중한 사랑을 지키고자 애달파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버팀목이요, 간절한 구원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의 길잡이가 될 희망의 노래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묵주가 없다면 손가락으로 대신해도 될 만큼 간편하고 깊이가 있으며, 단순하며 심오한 이 기도는 무엇보다 나 혼자 아닌 성모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에서부터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상까지도 묵주알에 꼭꼭 눌러 담아 한 단 한 단 바칠 수 있는 “인생의 맥박”(<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2항)과 같은 묵주기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바치도록 권장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도 “저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같은 글, 2항) 라며 수시로 이 기도를 바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달 교리문고답하기는 문제현 바오로 신부님(성내동 부주임)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고해소에 있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그런데,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하는 물음이죠. 때로 “저는 고백할 죄가 없어서 성사를 안 봐요. 그래서 판공 때마다 성사 보는 것이 힘들어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고 추첨일을 기다리죠. 주간 내내 기다리다가 추첨일이 되면 초조한 마음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추첨 상황을 지켜보고, 당첨되지 않으면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권을 사러 가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권을 사는 것이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하지만 복권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주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지낸다면, 그래서 희망하고 실망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 자녀가 이리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복권 사는 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그 삶이 안타까워서 복권 사는 것을 말리지 않을까요? 복권에서 자유로워지라고 그를 설득하고 계속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감정 자체와 그 감정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의 구별

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행복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에서 오는 행복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여 나만 챙기고 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으로’(창세 1,26 참조) 창조되었고, 하느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삶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유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라는 계명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하기를 하느님께서서는 참으로 바라십니다.

죄 이야기로 돌아가면,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시는 하느님께, “하느님, 이런 저를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죠?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말 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되는 행위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듣는다면, 지금 나의 선택과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7 WYD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신설 및 위원 임명

위원장: 양주열(베드로) 신부

위원: 최재영(시몬) 신부, 김세진(모세) 신부, 김재현(세례자 요한) 신부, 손호빈(디오니시오) 신부, 이희천(프란치스코) 신부,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정성윤(베드로) 신부, 이재협(도미니코) 신부, 김광두(고스마) 신부, 홍웅기(아우구스티노) 신부, 박민재(미카엘, '15서품) 신부, 이준(바오로) 신부, 오승언(안드레아) 신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 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50년 10월 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1986년 10월 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 19일 김윤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 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 2020년 10월 19일 김창만 안드레아 신부(88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0월30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은상 베드로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종 ‘최종여 라자로’
때: 매일 셋째주(화) 10월17일 오전 10시(191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3 대림·성탄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10월28일(토) / 접수 및 등록: 10월4일(수)~20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충무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한국교회사연구소’ 메리놀회 한국진출

100년 기념 2023년 2차 성지순례

순례지: 청주교구 수동성당, 내곡동주교좌성당, 증평성당 /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명동)
때: 10월28일(토) 오전 8시
회비: 5만5천원(택, 생수, 중식, 순례책자)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 입금 후 연락주세요
문의: 010-3348-1901 간사 이충자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미사)
때, 곳: 1388차 미사 10월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곡산 본당, 송림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분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10월2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사무국 일정으로 인해 10월은 셋째 주 금요일에 합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그리움을 쓰다’ 전: 1, 2전시실
오테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18일(수)~26일(목)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무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무국 교육지원팀

생명위원회

1) 10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0월1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제18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 안내 / 문의: 02)727-2351
공모일: 9월1일(금)~10월31일(화) /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신비상.com)에서 확인 가능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 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2023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무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385, 2386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과목당 5만원
신청기간: 10월31일(화)까지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교육과목	교육일시: 11월13일 · 11월20일 · 11월27일 · 12월4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신청접수법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10월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0월21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장인우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제55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10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사무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허영엽 신부와 함께 하는 기도교실, 문종원 신부 내면아이의 회복, 영성심리특강, 바이올린, 해금, 뮤지컬 등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7차, 28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27차	12월6일~14일(8박9일)	지도: 김문희 신부
28차	2024년 1월19일~27일(8박9일)	지도: 허규 신부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도심 속 반나절 피정	10월20일(금) 15시~18시
바오로 사도가 마주했던 신앙 공동체들	10월26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3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8259-7680

때, 곳: 10월17일(화) 13시~17시, 중앙동성당 / 강사: 황인숙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 강의: 박원구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일 셋째주(금) 10월20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지리산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때: 원주·춘천 2 11월24일~25일, 대구교구 2 12월1일~2일 / 문의: 010-3712-8119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 문의: 010-5768-6894

때: 10월27일(금) 20시~29일(일) 16시 / 선착순 30명

곳: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대상: 모든 신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피정

지도: 양창우 신부 / 강사: 황인숙

때, 곳: 11월3일(금)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접수): 02)929-297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때, 곳: 11월17일~19일·12월15일~17일 (금) 17시~(일) 15시(2박3일),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권민자 수녀 / 문의: 031)321-9054, 010-4154-0885

Fiat 피정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때: 10월21일(토) 14시~22일(일) 16시 / 대상: 젊은 여성들

곳: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주최) 본원

회비: 2만원 / 문의: 010-3944-1375, 010-2084-8913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

예수회 정규한 신부의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때: 매일 셋째주(수) 10시~16시

곳: 생활기도수련원(삼성동)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인원: 선착순 15명 / 문의(문자접수): 010-3845-3045

잠원동성당 성령기도회 / 문의: 010-9253-1132

때, 곳: 매주(화) 19시30분~21시30분 / 강의, 미사, 안수

10월17일	김경진 신부	10월31일	김성대 신부
--------	--------	--------	--------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0월20일	이상기	10월27일	치유대피정
--------	-----	--------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	-----------------------------------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자체취사)	010-9715-1203
---------------------	---------------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강사: 이상기 / 문의: 010-8898-6770

때: 10월2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3일(금)~5일(일)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리)

10월26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10월24일~26일·11월9일~11일(행복 피정)·11월17일~19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 대상: 개인(본당 전신자 피정, 구반장 피정)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온라인 33일 묵상회·성모신심 피정

문의(접수): 010-2724-4819 서울마리아 학교

1) 온라인 33일 묵상회 개최

때: 10월23일~11월27일 매주(월) 20시(6회)

회비: 3만원(33일책·묵상노트·택배비)

2) 한국 천주교회와 성모신심 피정

강사: 유은희 수녀(순교 복자회)

때: 10월23일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성모신심 피정·셀모임(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성모신심 피정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강사: 이계호 신부(강남성모병원 원목실장)

때: 10월16일(월) 9시1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강의와 미사

2)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29일~31일·11월3일~5일·11월11일~13일

·11월17일~19일·11월23일~25일·11월27일~29일

·12월8일~10일·12월16일~18일·2024년 1월6일~8일, 연말연시(혜님이·혜동이·눈꽃산행) 12월30일~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1차	11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교육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위령성월 금요 영성특강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접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가톨릭온(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기도에 관심 있는 분(수시 접수)

내용: 구제사(김혜운 수녀), 노화심리(김효성 수녀), 지혜여정 시리즈 여러 강좌 / 문의: 010-3092-1108

홈페이지: www.catholicon.co.kr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의 날 무료 건강강좌

내용: 일반인 대상 뇌졸중의 날 무료 건강강좌

때, 곳: 10월26일(목) 9시30분~12시, 서울성모병원(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무료 건강강좌이며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강좌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소책자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문의: 1588-1511 홍아름(뇌졸중 코디네이터) 뇌혈관센터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3차 모집

접수: 10월11일(수)~25일(수) / 전형일: 10월28일(토)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문의: 02)705-8678(www.soganggame.ac.kr)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회비: 10만원

내용: 영적독서 과정(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23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6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기-대금·소금·단소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 010-7930-2074
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 010-7244-1312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교육

때: 10월18일~11월15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영성센터)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부르심과 응답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10월23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모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
 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0월19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
 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사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10월20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45-6096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유동철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0월16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10월22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0월16일(월), 성거산 성지(천안)
 출발: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관(명동) 1층 정문
 회비: 3만5천원(점심·간식 포함)
 계좌: 794001-04-122952 국민은행(사랑이 피는 기
 도모임) / 입금 후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
 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아동그룹홈 후원자 모집(도미니코 수도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을 희망합니다
 아동그룹홈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982-9196,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
 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제10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6일(목)~29일(일), 대한극장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무료(자율기부제) 영화 상영
 상영시간표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
 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
 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청소년 개인·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제)한국천주교살레
 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개인상담,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종합
 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시립청소년드림센터(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개인상담 회당 5천원, 모래놀이치료·미술
 치료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유관단체 알림

다슬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목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코로나로 중단된 '폐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곳: 매월 세번째(토) 10월21일·11월18일·12월
 16일 16시,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내과전문의 1명, 시설과·전기·기관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 간호조무사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모집

분야: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서류: 종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20일(금)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0@cbck.kr) 문의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계약직) 모집

대상: 신자 / 업무: 성당청소 외(주30시간 이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90길 19) 및 이메일
 (kc7hoon@naver.com) 접수 / 문의: 02)568-3656 사무실

신정3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사제관 주방 근무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10월31일
 (화)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10) 및 이메일(lesy2205@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21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

허근·김지연·한창우·이철구·박철 지음
기쁜소식 | 128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중독 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임상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연 교수가 중독 분야 상담자와 치료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공동 저자인 명지병원 정신과 한창우 의사와 전 경찰대학교 학장인 이철구 치안정감, 단중독 사목에 앞장서고 있는 허근 신부와 방송인 박철과 함께 마약중독에 관하여 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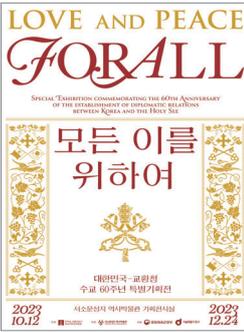


신간

하느님 보셨나요?

주상배 지음
기쁜소식 | 188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신앙생활 중 가톨릭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을 38가지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하기 좋은 책이다.



전시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문의: 02)3147-2407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무료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올해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국가 간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계를 살펴본다. 10월 12일(목)~12월 24일(주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진행된다.



공연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4만원
문의: 031)738-1492, 010-4270-310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1부로 2명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교황 비오 12세(Pius PP. XII)께 '평화의 사도' 명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12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에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을 진행한다.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기념
가톨릭페이 머니 지급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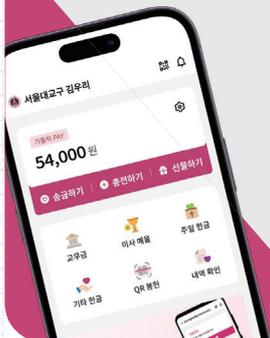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클릭하여 우리은행 WON뱅킹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 혜택1** 가톨릭페이에서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가톨릭페이 머니 5천원 지급 (선착순 10,000명)
- 혜택2**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가톨릭페이로 5천원 이상 충전 시 가톨릭페이 머니 3만원 추가 지급 (1,000명 추첨)

'가톨릭하상' 앱 이벤트 안내

- 기간** | 9월 18일(월)~10월 22일(주일)
- 대상** | 우리은행 계좌 이용 교우
- 참여방법** | ① 이벤트 기간 내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통해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 방문
②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클릭
- 경품 지급일** | 2023년 11월 13일 이후 개별 문자 통지 예정



가톨릭하상 다운로드 →

iOS용

안드로이드용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년 10월까지 제출(갱신 포함)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제출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하고, **2022년 11월 이후 작성·제출하신 분들부터는 기한 제한 없이 유지되어 차후 갱신 의무가 없습니다.**

- ※과년도(2019년~2022년) 및 올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 2017년, 2018년 중 최초 1회 작성·제출하시고 현재까지 갱신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가톨릭성서모임 '성서 40주간-신약' 수강생 모집

- 강의기간 : 10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강의장소 : 명동 교구청본관 401호
- 강 사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
- 수 강 료 : 30,000원
- 문 의 : ☎ 010-5271-9700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 상 : 성가 봉사를 희망하는 만 18~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 연 습 : ☎ 15시~17시, ☎ 11시~12시
- 활 동 :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및 대축일 미사
- 오디션 : 10월 21일(토) 13:3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 접 수 :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공지 참조
- 문 의 : ☎ 010-3211-5195 (※문자 요망)

◎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활 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두 번째 주일 세례식 성가 봉사
- 대 상 : 성음악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30~50세 여성 가톨릭 신자
- 오디션 일시 : 10월 22일(주일) 오후 1시
-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오디션 준비 : 자유곡, 지정곡 각 1곡씩 시창
- 문 의 : ☎ 010-6303-1365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우 (교적 본당 무관)
-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6404-224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9월 11일 ~ 10월 8일 : 380,000원)

누계 : 4,466,124,413원

익 명 :	100,000원	김 철 수 :	100,000원
익 명 :	30,000원	익 명 :	50,000원
이 윤 성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차량을 이용하여 명동성당 주일미사를 참례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지하 3층과 4층(B3·B4) 주차장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주차 후 2시간 이내에 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명동보름장 개장

-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교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10월 22일은 연중 제 29 주일이자 제97차 전교 주일로, 매 미사 중 물질적·영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지역의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 마리아와 마르타 신입단원 모집

- 활동 : 상·하반기 견진교리·성사 (안내, 접수, 나눔) 본당과 교우의 유대를 위한 제반 사업
- 모임 :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 4시
-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30~40대 가톨릭 신자
- 제출 : [①~③]을 kwonilhwan@naver.com으로 제출
① 입단신청서 (☎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글에 첨부)
② 견진성사 증명서, ③ 교적증명서
- 기간 : 10월 31일(화)까지 (※추후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
- 문의 : ☎ 010-7622-0418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 성가책 사용 안내 (대성당 비치용)

대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가책은 교우분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사용하신 후에는 반듯하게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솔기(토마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51	봉헌 : 510, 216, 220	성체 : 153, 183, 175	파견 : 6(2)
-------	---------	--------------------	--------------------	-----------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3년 4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 목주기도 성월 기도회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성모동산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함께 하시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또한 가정의 성화를 위해 은총을 청함
시다. (※우천 시 기도회 취소)

- 일시 : 10월 16일, 23일, 30일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미사 후

◎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한낮음악회

- 일시/장소 : 10월 17일(화) 낮 12시 30분 / 대성전
- 연주자 : 최지연 (안젤라)
- 연주곡 : Buxtehude -
Magnificat primi toni BuxWV 203 外 3곡

◎ 첫 고 해

- 9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장소 : 10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명동대성당 방호원 모집 (채용 시까지)

- 대상 :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된 신자로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담당 계약직 방호원 1명
- 서류 : ①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입사지원서
(☞ 본당 홈페이지 관련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②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타 교구 신자는 '주임사제추천서'로 대체)
③ 교적증명서
-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 접수 : 방문·우편·이메일(mdsdca@catholic.or.kr) 접수

《 위령의 날 미사 》

11월은 「위령 성월」로서 주님의 자비에 맡겨진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입니다. 11월 2일(목)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
하는 위령의 날」로, 당일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
들은 11월 1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
거나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명동대성당 유튜브 실시간 미사 중계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부터 송출해온 본당
유튜브 실시간 미사 중계를 10월 22일(주일)을 마지막
으로 종료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인원
제한 조치도 해제되었으므로 미사 참례를 통해 그리
스도의 성찬에 직접 참여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정상 미사 참석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와 유튜브(채널명:
cpbcTV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사무원 모집

- 인원 : 계약직 사무원 1명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可)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0/2-10/8).....22,961,700
 - 연중 제 27 주일 헌금.....28,635,000
 - 군인 주일 2차 헌금.....22,885,000
 - 감사헌금 (10/2-10/8).....2,105,000
- 김 로사리아 / 도 로사 / 송 안드레아
심 알베르도 / 오 미카엘라 / 이 라자로
이 베드로 / 임 사무엘 / 천 테오도로
천 테클라 / 최 안나 / 홍 엘리사벳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미사)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평일미사	월	07:00, 18:00	고해성사 (Confession)				
		화-금	07:00, 18:00, 19:00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성지미사	토	07: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월-토	10: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un.	08:30 - 08:50				
			Fri.	16:00 - 18:00	Sat.	15:00 - 17:00		